

지역 소식통

제21회 고창고인돌 마라톤대회 참가 접수

전국 마라톤 애호가들의 흥겨운 축제인 '제21회 고창고인돌 마라톤대회'가 오는 11월19일 고창공설운동장에서 열린다. 참가신청은 오는 10월13일까지 '고창고인돌마라톤대회' 홈페이지(www.ganun.com)를 통해서 접수받고 있다.

종목은 건강코스(5km), 단축코스(10km), 하프코스(21.0975km) 3가지 종목이며, 참가비는 건강코스는 5000원 단축·하프코스는 3만5000원이다. 대회는 고창군체육회와 고창군육상연맹이 주관하며, 전라북도과 고창군이 후원한다.

올해 고창군은 '2023세계유산 도시 고창방문의해'를 추진하며 연속 끊이지 않는 축제와 행사를 기획하는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고창고인돌 마라톤대회를 통해 수많은 관광객들이 가을고창의 매력을 만끽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경찰, 차량털이 절도 피의자 검거

정읍경찰서(서장 김한곤)는 전북, 경북 일대 아파트 단지 내를 배회하면서 주차된 차량 내에서 금품을 절취(10회)한 절도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피의자는 아간에 아파트단지 내 주차된 차량들 중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 만을 골라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및 금품(총 32만원)을 절취하였다고 진술했다.

정읍경찰서 김한곤 서장은 "차량털이 범인은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 주차하여 차량 문을 잠겼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파트 안내 방송, 홍보지 배포 등을 통해 예방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결정

고창군, 농촌인력 심의위서... 농민들의 생계안정·노동의 질적향상 도모

고창군이 지난 4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2023년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를 열고 적정 인건비를 결정했다. 합의된 인건비는 남자는 하한 11만원~상한 13만원으로 하고 여자는 하한 9만원~상한 11만원으로 결정했다.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인 노형수 고창군 부군수를 비롯해 고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유로 직업소개업소 및 농업관계자, 노무·임금 전문가 등 인건비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업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인사로 구성됐다.

심의위에선 농촌인력의 평년 임금 등을 고려해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설정에 대한 방법과 적정선을 어디까지 둘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됐다. 지역 농민들의 생계안정과 노동의 질적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열린 토론을 통해 적정 인건비를 결정했다. 고창군에서는 지난 8월 1일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시행했다. 조례에 따르면 군 소재 유로 직업소개업소와 근로자를 고용한 농민은 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적정 인건비를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은 적정 인건비를 성실히 준수하는 등 유로직업소개업소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업소를 포상할 수 있으며, 적정 인건비를 잘 지킨 농민에게는 각종 농업분야 사업 선정 때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적정 인건비를 준수함으로써 고창군이 타지역에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모두가 잘 사는 농촌환경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제28회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부안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5일 오후 2시 부안군청 대강당에서 군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부안군, 2023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제28회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부안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5일 오후 2시 부안군청 대강당에서 군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양성평등주간(9.1.~9.7.)을 기념하고자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을 주제로 실시된다. 기념식은 난타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선언,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 축사, 결의문 낭독과 퍼포먼스가 진행되며, 기념식 이후에는 양성평등주간 의미의 되새기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가래라 가수 이현의 감성힐링 콘서트(콘서트형 강연)가 열린다. 부안군여성단체협의회는 부안관내

15개 여성단체 회원 2,500여명이 가입되어 여성의 권익신장과 여성단체 간의 상호협력과 교류를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양성평등의식을 확산하고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하순례 부안군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올해 양성평등주간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양성평등에 대해 소통하고 공감대를 만들어 여성이 존중받는 사회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양성평등 주안을 계기로 평등이 일상화 되는 사회를 만들고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성진 기자

## 정읍시 장명동,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최종 선정

'각시다리터 우리동네 살리기' 4년간 82억 투입

정읍시는 '장명동 각시다리터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3년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 살리기)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우리동네살리기는 오래된 소규모 주거지역에 생활 편의시설과 공동이용 시설을 확충해 정주 환경 개선, 도시경관 개선, 골목 활성화, 주거여건 지원 등을 꾀하는 도시 활력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정읍시 도시재생사업은 소규모 주거지역의 주거지 정비, 집수리 등 노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목표로 하는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이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명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하고 도시재생대학을 개최하는 등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의 공모사업 도전 끝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국비(45억원) 포함 총 82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장명동 지역 생활여건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사람은 마을을 마을은 사람을 돌보는 장명·長命을 비전으로 정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각시다리 마을 △서로를 이어주는 각시다리 마을 △함

께 어우러지는 각시다리마을 조성 등 3가지 목표를 설정, 이를 달성하기 위해 동행사업(집수리지원 골목길환경개선)과 보행안전환경 조성, 안심마을 만들기, 각시다리 모임터와 쉼터 조성 등의 사업내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수습난간 홍물로 방치되어 우범우려대상으로 지목되었던 옛 경찰서 관사건물 3동을 철거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인 각시다리 모임터를 조성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화숙 시장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역사와 전통의 장명동이 더욱 안전하고 살기좋은 사람중심의 마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시, A Farm Show 창농·귀농 고향사랑 우수지자체상 수상

정읍시는 지난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A Farm Show 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에서 유치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동아일보와 채널A에서 주최하는 'A Farm Show 박람회'는 2014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0회를 맞는 창농·귀농 관련 박람회다. 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 및 가공품 등을 전시하는 한편, 예비 귀



농·귀촌인에게 정읍시만의 귀농귀촌 정책 소개, 그동안의 성과 등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시는 농업창업자금 융자지원과 영농

정착 지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귀촌학교 운영, 농촌에서 살아보기, 마을환영회, 멘토·멘티 컨설팅,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등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추진해 예비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정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는 도시민에게 정읍시의 우수한 생활 여건과 다양한 정책을 알릴 수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2023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고창군이 양성평등주간(9월 1~7일)을 맞아 5일 오전 동리국악당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사회'를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양성평등 기념주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올해로 28회째를 맞았다. 고창군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화자)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기념행사는 심덕섭 고창군수와 임정호 고창군의회 의회장 및 군의원, 역대 여성단체협의회장 및 양성평등주간 유공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양성평등 문화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고창군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

금 전달, 개회사 및 축사, 양성평등 퍼포먼스, '일상속에서의 양성평등'을 주제로 한 특강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양성평등 퍼포먼스를 통하여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구현을 위한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창군 여성단체협의회 이화자 회장은 "우리 모두가 양성평등의 소중한 가치를 함께 나누고 모두가 존중받는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배려와 공감, 소통에 더욱 앞장서는 고창군 여성단체협의회가 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행사가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수거함 배치

정읍시가 폐농약, 폐의약품 수거함 배치로 시민 건강과 주변 환경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폐농약, 폐의약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된다. 별도 수거·처리되지 않을 경우 부적

정 배출돼 환경오염을 일으키거나, 가정 내 방치돼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시는 폐농약 및 폐의약품의 적정 수거·처리를 위해 지난 1일 폐농약 수거함을 행정복지센터 20개소에 설치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